에티오피아 교회 성장 운동에 기여할 한국 선교사로서의 역할:

-깔레 헤이워트(Kale Heywot) 교회 성장 운동을 중심으로 (1927-1994).-

1. 서론

2. SIM 선교사들의 월레이타 지역 교회 개척 활동(1927-1937)

3. 이태리 침략 동안의 월레이타 지역 교회 성장 (1937-1941)

4. 월레이타 지역교회에서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단으로 성립하기까지의 배경 (1941-1994)

5. 에티오피아 개신교회 성장에 기여할 한국 선교사로서의 역할

6. 결론

박종국, 장은혜 선교사

(GMS-SIM)

에티오피아

2010년 12월 30일

I. 서론

최근 에티오피아[1] 내에 개신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개신교회 중에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단 (The Ethiopian Kale Heywot Church: "생명의 말씀" 교단)[2] 의 성장은 과히 주목할 만 하다. 이 교단은 SIM (Serving In Mission)[3] 국제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 1927년 에티오피아의 남부, 월레이타지역[4] 에서 개척한 교회가 현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장하여(Lambie 1939: 170; Cotterell 1976:21), 현재 전국에 7,774 교회와 650만의 교세를 갖고 있는 제일 큰 개신 교단이라 할 수 있다 (Tesfaye Yacob 2010: 59).

에티오피아 내에 개신교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특별히 깔레 헤이워트 교단이 어떻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깔레 헤이워트 교단이 급성장한 이유에 대하여 많은 연구[5]가 있었는데 초기 SIM 선교사들의 헌신과 교회개척의 전략이 그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Lambie 1939, 1943; Fargher 1996), 현지 교회의 선교적 공헌이 크다고 하는 연구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발표되어 왔다(Cotterell 1973; Balisky 1997; Wondiye 2000; Getachew 2000). Gerdien Verstraelen-Gilhuis 에 의하면, 아프리카 교회성장의 원인이 선교사의 공헌이냐 아니면 아프리카 현지인 선교사들의 공헌이냐를 나누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한다. 왜냐하면 선교의 초기부터 선교사와 현지교회와는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왔고,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1992: 93). 이는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회의 성장에도 해당이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온 초창기 SIM 개척 선교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월레이타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회 성장의

---

[1]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의 58%가 기독교 (에티오피아 정교회 43.1%, 개신교 14.1%, 카톨릭 0.75%) 이고, 무슬림이 35%, 전통종교가 6%를 차지하고 있다.

[2] 깔레 헤이워트 교단은 메카니 예수스 교단 (Mekane Yesus Churches)과 함께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큰 2대 개신교 교단이다. 깔레헤이워트는 대략 450 만명의 교세를 갖고 있고, 메카니예수스는 40만명의 교세를 자랑한다.

[3] SIM (Serving In Mission) 국제선교단체는 미국과 캐나다의 빙햄, 고완즈, 켄트에 의해서 수단내지선교회 (Sudan Interior Mission)라는 선교단체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부터 아프리카 중부내륙의 수단벨트를 집중적 복음을 증거하려는 전략을 갖고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는 전세계 45개국 1,600여명의 선교사들이 65개국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4] 월레이타 (Wolaitta) 부족은 에티오피아 남부 월레이타 지역에 살고 있고, 인구가 2백만이고 월레이타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는 없다 (Shinn& Ofcansky 2004: 399).

[5] 깔레 헤이워트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로는, Thomas A. Lambie (1939), *Doctor without a countr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Lambie (1943), *Boot and Saddle in Afric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Peter Cotterell (1973), *Born at Midnight*. Chicago, IL: Moody Press; Brian Fargher (1996), *The Origin of the New Church Movement in Southern Ethiopia, 1927-1944*: Leiden, The Netherlands: E.J. Brill; Paul Balisky (1997),*Wolaitta Evangelists: A Study of Religious Innovation in Southern Ethiopia*; Wondiye Ali (1998), *Ba-mekera Wust Yabebech Bete Kristiyan* (고난 속에서 성장한 교회); Getachew Belete (2000), *Ya-Ekule Lelit Wegegta (한 밤중의 밝은 빛)* and *Elohe Ena Hale Luya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야기는 선교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수백만 에티오피아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번 주제 발표에서는선교사와 에티오피아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룬 에티오피아의 깔레 헤이워트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성도들, 그 중에서도 월레이타 지역의 성도들의 헌신과 주도적인 전도의 열정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들의 헌신으로 전국에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고, 650만 성도를 자랑하는 현재의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단이 형성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그렇다면 앞으로 에티오피아 교회를 위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 발표에서는, 1927 년부터 1994 년까지의 에티오피아의 깔레 헤이워트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다루어 보겠다. 첫째, SIM 선교사들의 월레이타 지역 교회 개척 활동(1927-1937): SIM 선교사들의 에티오피아 입국시의 정치, 종교적인 상황과 그들의 선교 활동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이태리 침략 기간동안 월레이타 지역 교회 성장 (1937-1941): 이태리 침략, 월레이타부족의 개신교 선택의 배경, 4 명의 초기 교회지도자들에 대해서 다룬다. 세째,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단 성립 (1941-1994):이태리 침략후의 월레이타 교회 성장및 교회개척 전략, 그리고 독립 교단을 성립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개신교회 성장에 기여할 한국 선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뤄 보기로 한다.

이 주제 발표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로는, SIM 선교사들의 자서전, 개인 편지, 책, 논문, 선교저널을 이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성도들의 활동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 간행된 월레이타 전도사 마키나 마자 (Markina Meza)와 마하리 초라모 (Mehari Choramo)의 자서전, 그리고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회사 시리즈와 웹사이트 (www.ekhc.org) 등도 에티오피아인들의 관점에서 본 교회성장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II. SIM 선교사들의 월레이타 지역 교회 개척 활동(1927-1937)

SIM 선교사들의 에티오피아 입국시의 정치, 종교적 상황

1927년에 SIM 선교사들은 Dr. Thomas A. Lambie[6] 의 인도하에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 입국을 했다.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강한 반발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선교활동을 바로 개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에티오피아는 4세기에 악숨제국의 왕이 먼저 개종을 하면서 이집트를 통해서 정교회 기독교를 받아 들였고, 국교로 선포하였다. 암하라 부족이었던 악숨제국이 영토를 전국으로 팽창하면서 교회를 앞세워 정복한 부족들을 기독교화하기 시작했고, 식민지화 정책도 함께 병행해서 암하라 부족의 문화와 언어를 쓸 것을 강요했다 (Taddesse 1972: 99, 173, 231-232).그래서 지금까

[6] Thomas Lambie 는 미국 의사로서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소속으로 수단에서 선교사로 섬기다 1919년에 에티오피아에 입국하여 Sayo, Wallega, 그리고 Addis Ababa에서 사역을 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동안 Haile Selassie에가 황제로 등극하기 전부터 친분을 맺어 그의 주치의가 되었다. 안식년을 맞아 본국에 돌아가 에티오피아 남부를 향한 그의 선교 비전을 SIM 창립자인 Rowland Bingham과 나누고 에티오피아에서 함께 일할 것을 동의하게 되어 SIM 선교단체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 그와 함께 온 선교사들은 Mr.and Mrs. George Rhoad, Rev. and Mrs. C. J. Rasmussen, Glen Cain, Walter Ohman, and Clarence Duff.

지도 암하릭어가 에티오피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4세기 이후로 정교회와 정부가 밀접게 연합되어 있어 에티오피아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보수세력인 여왕 Zauditu Menelik과 개혁을 주장하는 Tafari Makonnen[7] 간에 갈등이 절정에 이른 상태였다. Tafari Makonnen은 에티오피아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세와 동맹을 추진하는 한 편, 서양의 선교사들도 받아들였다. 그는 또한 에티오피아 정교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8] 에서 파송하는 교황이 오는 것을 금하려고 했다 (Taddesse 1998: 17). 그 사건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Zauditu가 Tafari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려는 입장은 결과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입국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표방이 되었다 (Shinn & Ofcansky 2004: 413).

SIM 선교사들은 에티오피아 남부로 선교활동을 하기를 원했는데,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제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허락을 받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Dr. Lambie는 Tafari Mekonnen 를 개인적으로 만나 비공식 허락을 받고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다. Dr. Lambie 의 글에 의하면,

> 수상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선교 활동을 위한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하셨다. 다만 조용히 지방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의 기회가 열리면 즉시 선교기지를 세울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Rambie 1939: 171).

정부의 공식 허가서없이, 1928년 3월 7일에 선교사 일행은 아디스 아바바를 떠나 서쪽의 Kaffa 주의 Jimma시를 향해 출발했다 (Lambie 1939: 171). 초기 선교사들이 짐마를 선택했던 것은 이슬람과 우상숭배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과 나귀를 타고 4일만의 여정 끝에 가이드의 실수로 길을 잘못 들게 되어 Kambata 주의 Hosanna 시로 가게 되었고, 가이드 중의 Biru Dubala라는 사람이 거기서 짐마로 가로질러 갈 수 있다고 확신을 주었다(Cotterell 1973: 24).[9]

---

[7] **자식이 없던 여왕 Zauditu 는 왕위 계승자로 Tafari Makonnen 을 지명했고, 1930년 11월 2일에 그가 Haile Selassie 황제로 등극한다.**

[8]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초창기부터 이집트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에 알렉산드리아 교황청과 밀접한 의존관계를 형성해 왔다. Teferi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 교황청과 독립하기를 원했다. 1926년에 주교 Abuna Mattewos가 죽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를 파송하지 못하도록 일을 지연시켰고, 결국 1959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결별을 선언하므로 에티오피아 주교를 자체적으로 세우게 되었고, 자신이 교회와 국가의 수장인 황제로 등극하게 된다.

[9] Clarence W. Duff는 그의 책 (사랑의 끈: *Cords of Love, 1980.* p.31)에서 다른 기록을 남겼다. 가이드였던 Biru Dubala가 Duff에게 선교사 일행이 무슬림 지역인 짐마로 가게되면 환영받기 어렵지만, Kullo Konta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선교사들을 더 환대할 것이므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을 했다.

선교사 일행이 Kambata주와 Walaitta주, 그리고 Sidama주에 각각 도착을 했을 때, 주민들에 의해서 대환영을 받게되고, Dr. Lambie는 가는 곳마다 그 곳의 주지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연히도 그들이 그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인 것을 알게 된다 (Cotterell 1973:25). 그들의 도움으로 선교 스테이션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 Jimma시로 가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을 바꾸게 된다.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Dr. Lambie가 다시 왕위 계승자 Tefari와 정부관료들의 도움으로 정식 허가를 받고, 2년간의 복음전도의 노력 끝에 5개의 선교 스테이션이 Marako시, Hosanna시, Soddu시, Homacho시, Addis Ababa시에 세워지게 되고 22명의 선교사들이 더 오게 되었다(Cotterell 1973:35-36).

Wolaitta지역에서의 SIM 선교사들의 초기 활동(1928-1937)

SIM 선교사들이 1928년에 Wolaitta주 Soddu시에 도착하자, 주지사였던 Dejazmatch Yegezu 가 Soddu시 외곽, Otona라고 부르는 지역에 부지를 제공하므로 병원과 선교사 주택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었다(Markina 2008: 228). 선교사들은 설교, Teaching, 그리고 의료사역을 하므로 복음을 전했고, SIM 선교사들의 그 당시 목표는 “새로운 기독교 코뮤니티(New Christian Communities)” 형성에 있었다(Fargher 1996: 49).

1933년 말 쯤에 개종자 중에 16명이 세례 받기를 요청했다. 지원자중 3명은 선교사들이 세례심사에서 거절을 했는데, 그러자 뜻밖에 세례 지원자들이 자원하여서 서로를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전통 할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 할례 의식에 대해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자 3명이 다른 지원자들에 의해서 세례 결격자들로 판정이 내려졌다. Brian L. Fargher (1996: 26-59) 에 의하면, 세례 지원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세례자들의 전폭적인 삶의 변화가 요구되었는데, 그들의 행동과 태도, 특별히 Meskel 축제 때 생고기를 먹는 것, 할례 의식에서 행하는 여러가지 파격적인 행위들, 음주, 술접대, 일부 다처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지가 평가되었다고 한다.

드디어 1933년 12월 10일에 첫 10명의 Wolaitta 개종자들이 Soddu시의 Otona SIM 선교스테이션에서 선교사 Mr. Ohman 과 Mr. Lewis에 의해 세례를 받게 된다 (Cotterell 1976:69). Wolaita의 첫 세례자로는 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Ato* Diassa, *Ato* Desta 와 그의 아내 Mamite, *Ato* Biru (초기 SIM 선교사 일행을 가이드 했던 자로, 후에 Wolaitta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된다.), *Ato* Wandaro (이태리 침략기간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진 핍박과 투옥생활을 감내한 자), *Ato* Godana, *Ato* Cheramo 그리고 그의 아내 Parakei, Ato Arebo, Kowna Cubba 이다 (Cotterell 1973: 69; Davis 1966: 73).

세례 받은 자들은 선교사들이 인도하는 성찬식에 즉시 참여하게 되었고, 크리스찬 코뮤

티의 정식멤버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첫 성찬식에는 발효되진 않은 빵과 물을 사용했고 (Cotterell 1976: 69; Fargher 1997: 188; Markina 2008: 182), 성찬식 후에 Desta, Diasa and Godana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고, 그 후로는 이들이 다른 개종자들을 세례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Cotterell 1976: 69).

Wolaitta에서 첫 세례식을 한 후에 1933년 12월 1일-6일까지 SIM Field Council이 열리게 되었다(Cotterell 1973: 70). 그 회의에서 2가지 안건이 제기가 되었는데, 첫째는 전도사들을 훈련할 학교의 장소와 운영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짓기 위한 예산에 대한 것이었다. 선교사 Mr. Street의 제안에 의하면,

> 우리는 전도사들을 훈련하는 예산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짓고 난 후에 전도사 양성을 위한 성경학교(Bible Training Institute)가 필요하다면, 현지인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프로젝트로서가 아니라 … 선교사들이 도울 수도 있지만, 선교사들이 재정을 제공하는 것 또는 그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성도들 자체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tterell 1976: 72-73).

SIM 선교사들의 Indigenous Principles은 교회 개척 초창기 때부터 적용이 되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결정들은 그 때 이후로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자 마자 이는 전적인 에티오피아인의 교회였다.

Mehari Choramo 에 의하면, 교회 건물은 Wolaitta 성도들이 함께 공동작업을 하여 평범한 Wolaitta형식으로 지었다고 한다. 교회 건물안에 의자는 없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새로 자른 풀을 흙바닥에 깔아서 썼다. Wolaitta교회는 자신만의 예배형식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매주일 예배는 다음의 4가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 악기없이 Wolaita 특유의 5음계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말씀 배우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다”고 한다(Choramo 1996: 46).

1935년 8월 1일, 두번째 세례식은 Bosa Qacha 지역에서 7명이 Biru Dubala와 다른 한 사람의 인도하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Davis 1966: 107). 세번째 세례식은 1937년 3월 7일에 Humbo에서 15명이 세례를 받았다(Ohman’s letter 1937a). 네번째 세례식 때는1937년 4월 4일에11명이 세례를 받았다 (Ohman’s letter 1937b). SIM선교사들이 1927년 입국하여 사역한 지 10년 만에 Wolaitta 크리스챤 코뮤니티에 48명의 세례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III. 이태리 침략 기간 동안의 Wolaitta 지역 교회 성장 (1937-1941)

이태리 침략

1935년, 10월 3일, 이태리 Mussolini 파시스트 정권은 에리트리아로부터 에티오피아를 무력으로 침략해 왔다. Haile Sellassie황제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태리군과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지만 결국 영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어, 이태리군이 1936년 5월 5일에 아디스 아바바를 점령하게 되고(Ofcansky & Berry 1993: 37), 1937년 4월 17일에 SIM선교사들은 48명의 Wolaitta성도들을 뒤로하고 이태리군에 의해서 강제로 Soddu시에서 모두 철수해야 했다 (Davis 1966: 106; Markina 2008: 25).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 Wolaitta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Choramo에 의하면, "Wolaitta주에 이태리군이 점령했을 때, 성도들은 시장과 장례식장에서 복음증거하는 일을 계속했고, 교회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Choramo 1997: 46). 이태리군은 Wolaitta지역의 교회가 성장하자 배후에 영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 저항 세력" (Markina 2008: 26)으로 간주하여,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투옥하였다 (Fargher: 1996: 202). Markina Meja는 이태리군이 Wolaitta성도들에게 가한 잔인한 핍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성도들 중의 한 사람인 Ato Lolamo Eibero는 복음에 대해 얘기했다고 400대를 맞았고, Ato Wandaro Dabero는 100대를 맞았다. 다른 성도들, Ato Sawaldo Segaro와 Ato Alando Leka는 너무나도 잔인한 체형 때문에 옥중에 있다가 곧 죽었다 (Markina 2008: 26).

이태리 침략동안 잔인한 핍박과 형벌은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켰고,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을 이겨낸 것과 그들의 순교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는 두고 두고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교회 지도자들은 옥중에서 고난을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었으며, 출옥 후에도 지도자들의 단결은 계속되었다.

<u>Wolaitta 지역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종교들</u>

SIM 선교사들이 Wolaitta 지역에서 철수하고 난 후, Wolaitta지역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종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첫째, Wolaitta 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전통종교가 있었다. Choramo에 의하면,

> Wolaitta 사람들은 점술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조상 신들이 그들 가까이에 있다고 믿고, 조상신들에게 제물을 을 바쳤고, 큰 나무 밑이나 강둑에 제물들을 두곤 했다 (Choramo 1997:8).

둘째, Wolaitta 지역에 이슬람도 들어 왔지만, 사람들이 이슬람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세째,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지지하는 신도가 될 수도 있었다. 1894년에 Meniliek 2세가 Wolaitta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진군해 들어왔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앞세워 전통종교를

따르는 Wolaitta 부족을 기독교화하려고 했다 (Tasafe 1959 EC: 326). 기독교화 과정에, 암하라 부족인 Axum 제국은 Wolaitta 식민지를 암하라 언어와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썼다. Choramo에 의하면,

>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도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말을 배워야 했고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어야 했다. 암하라부족에 동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자 만이 새로운 암하라 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인종적으로 암하라 인이 될 수는 없지만, 암하라 동화정책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즉,정부나 군대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암하라 부족의 언어와 종교를 선택해야 했다 (1997: 17).

정복자인 암하라 부족의 기독교화는 식민지와 함께 들어 왔기에, 정교회로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암하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 그들의 통치하에서 겪은 착취와 지배 때문에, 사실 정교회는 배척이 되었다. 정교회는 기독교화를 꾀했을 지라도 특별한 선교기관이나 정책을 개발하지 않았고(Isichei 1995:214)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았다. 성경은 고대 Geeze언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기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어서 결국, 많은 Wolaitta부족민들이 다시 그 전의 전통종교로 돌아가게 되었다(Cotterell 1973: 111).

네번째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을 종교는 이태리 식민주의자들의 종교인 카톨릭이었다. 1940년 보고에 의하면, Wolaitta에 20,000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Trimingham 1965: 29).이태리는 Wolaitta에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썼고, 반면에 개신교 교회성장 운동을 강하게 억눌렀다. Markina Meja에 의하면, “이는 개신교회를 일소하고, 개신교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었다” (Markina 2008, 27). Wolaitta를 점령하고 있는 이태리가 이전의 식민세력인 정교회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카톨릭은 Wolaitta 족 사람들에게 반가운 종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Wolaitta 족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는 소수 개신교 크리스챤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Wolaitta 전통신앙의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악령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님이 병과 죽음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악령을 두려워 하는 그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었다. 이러한 메세지는 Wolaitta 족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부합이 되었다. Markina에 의하면,

> “나는 선교사들이 번역한 암하릭어로 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식민 통치자의 언어 암하릭을 배웠다. 암하릭어 성경을 읽고 Wolaitta어 로 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2008: 20-22) 라고 했다.

이전에 암하라 언어는 Wolaitta를 착취하기 위한 정복자의 언어였지만 선교사들에 의해

서 번역된 암하릭어 성경말씀은 Wolaitta부족 사람들을 악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켰고, 더나아가 자신의 부족과 그 이웃 부족에게 담대하게 그 자유함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복된 메세지가 되었다.

Wolaitta 지역 교회 4명의 초대 지도자들

이태리 침략기간 동안, SIM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에서 모두 철수했음에도, Wolaitta 지역은 4명의 초기 지도자들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했다.그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여 심지어는 Wolaitta주 지역 밖을 넘어서 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태리 군의 핍박하에도 그들의 믿음과 지도력은 교회성장 운동을 가져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Ato Biru Dubala는 초기 SIM선교사들을 남부 Wolaitta주 지역으로 인도했던 가이드였다 (Duff 1980: 31). 선교사들과 일하기 전에 그는 정교회 크리스챤이었지만, 아디스 아바바에서 Swedishi Evangelical Missin이 세운 "영어학교" 에 다니면서 영어와 성경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Marcus 1975: 246-247). 그 이후, 그의 믿음이 성장하여 Wolaitta에서 1993년 12월 10일 행해진 첫번 째 세례식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된다(Davis 1966: 73; Cotterell 1973: 69). 초창기부터 그는 지도자로서 두각이 되었다(Davis 1966: 120). 선교사들이 모든 떠난 기간 동안, 세례받은 48명의 성도들을 돌보고[10], 이태리 군의 핍박하에도 Wolaitta지역및 그 이웃 지역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므로 Wolaitta교회를 이끈 초대 지도자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다. [11]

Wolaitta주의 수도 Soddo에서 20Km 떨어진 Humbo지역에서는 Wandaro Dabaro가 교회 지도자로 활동했다. Wandaro의 아버지는 무당으로 그 지역의 큰 나무들을 섬기고, 사탄에게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곤 했다. Wandaro가 성장해서는 Wolaitta를 정복한 암하라 부족 관료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절망감을 갖고 살아야 했다. 결국 자신이 섬기던 신들도 암하라인들에게 빼앗긴 소와 땅을 되돌려 주지 못했다. 세상에 정의가 없음을 한탄하던 가운데, SIM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땅에 오셨다는 메세지는 Wandaro를 위한 희망의 메세지 였고,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Davis 1966: 58-60). 그 후로 Humbo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7개월 후 8명의 첫 세례자들과 함께 세례를받고, Wolaitta주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된다 (Cotterell 1976: 69). 이태리 침략 기간동안 Wandaro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숙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유별나서 복음증거에 열심을 내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던

[10] Markina Meza에 의하면 Ato Biru가 Bosa Qach에 있는 땅을 헌신하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나, 1939년 말에 이태리 군에 의해서 파손되었다 (2008, 27).
[11] Kale Heywot교단은 Ato Biru를 Wolaitta교회의 1936년에서 1945년까지의 초대 지도자로 기록하고 있다 (Markina 2008: 226).

그 지역 암하라 관료, Dogesa는 그를 시장 한 가운데 나무에 묶어서 채찍질을 하여 투옥시키므로 더 이상 사람들이 그의 교회에 가지 못하게끔 핍박을 했지만, Wandaro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출옥 후에도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Davis 1966: 127; Getachew 2005).

Koysha 지역의 Toro Dubusho 는 1932년부터 SIM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두번째 아내와 결혼하는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Davis 1996: 100), 곧 회개하고 그 이웃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전도하여 얻은 개종자로는 Cowna Gafato[12]가 있다. Gafato 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메세지가 그가 지금까지 갈급해 하고 있던 메세지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곧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했다. 12주 후에 그를 비롯하여, 그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은 후,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선교사들이 Wolaitta에서 철수하고 없는 동안, Toro와 Gafato의 복음 증거로 Koysha에서만 18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Davis 1966: 133). 이태리 군의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Toro와 Gafato를 비롯한 교회지도자들이 수감되어 100대씩 매를 맞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Toro가 작곡한 노래, “우리가 고통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라는 노래가 감옥에서 유행하여 불리우게 되었다 (Davis 1966: 136).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Wolaitta 지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다. 핍박, 고통, 투옥,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Toro와 Gafato가 출옥한 후에도 열심을 내어 지하에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받은 자의 수가 증가하여 400명을 넘게 되었다” (Davis 1966: 134).

마지막 지도자로 Wanche지역의 Dana Meja를 꼽을 수 있다.Dana Meja는 1907년 Soddo에서 15 Km 남쪽으로 떨어진 Wanche지역에서 태어나서 노예들을 매매하는 일을 하므로 비교적 유복했었다. 1935년에 Dana와 아들 Markina가 집으로 오던 중 우연히 Wandaro가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Wandaro 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으며, 그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지만, 사탄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지옥 불에 떨어 질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설교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Markina 2008: 17). 얼마 후 Dana와 그 아들 Markina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Davis 1966: 15-24), Wandaro의 요청에 따라 집에 있는 Satan을 숭배와 관련된 우상들과 부적들을내다 버렸다 (Markina 2008: 19). 그후에 Dana의 부인과 집안의 다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선교사들이 떠나고 난 2년 후에 Dana가 Wanche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헌납했다 (Davis 1966: 121). Dana Meja1946년에서 1966년까지 Wolaitta 지역 교회의 회장으로 섬겼고, 그의 아들 Markina는 1956년에서 1966년까지 Wolaitta 주 교회 서기로, 그리고

[12] Cowna 라는 말은 왕의 아들이란 뜻으로 Wolaitta부족의 왕의 계보에 있는 자를 말한다. Cowna Gafato의 개종과 그의 간증은 다음의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Raymond Davis (1966), *Fire on the mountains.* New York: Sudan Interior Mission. pp.104-105.

1988년에서 1990년까지 회장으로 섬겼다.[13]

이태리 침략 동안의 Wolaitta 지역 교회 성장 (1941-1945)

이태리 침략동안 선교사들이 없는 가운데도 Wolaitta 지역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태리 군이 철수하고 난 후,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 오기 시작했고, 1941 년 11 월 SIM 선교사인 Davison 의 편지에는 Wolaitta 교회성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Kambata/Hadiya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전하기를 Wolaitta 에는 모두 67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교회에 100 여명의 성도들이 있고, Wolaitta 지역의 교회 지도자인 Biru 의 영적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Maraqo 에서 Gofa 에서 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10 일에서 15 일정도를 머물다가 말씀의 위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Duff 1980: 372).

Fargher에 의하면, 1941년 8월에서 9월까지 대략 5,000여명의 성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한다고 했고(1996: 226), Balisky에 의하면 1943에 약 100여개의 교회가 Wolaitta에 세워졌다고 했다 (Balisky 1997: 189). 1945년에 Playfair는 SIM 간행물에서 에티오피아 교회 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Wolaitta지역에만 200여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약 25,000여명의 성도들이 있다.Kambatta지역엔 100여개의 교회가 있고, 대략 15,000에서 20,000여명의 성도가 있다. 이 두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지역으로 현지인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Sidamo, Kabo, Arussi, Gamo, 그리고 Gofa 주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Sudan Witness 1945).

Wolaitta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 구조와 행정을 에티오피아 문화에 적절한 구조로 개발시켰다. Wolaitta 성도들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사용하는 *"마흐바르(mahibar)"* 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교회의 필요에 맞게 변형하여, 교회내에서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는 행정 모임으로 정착을 시켰다. Mahibar 모임에선 성도들의 징계, 부정행위, 구제, 전도사 사례금 준비, 투옥된 성도들을 위한 돌보는 일 등을 다루었다. 30, 40교회의 대표가 모이게 되는 회의를 *"크플러 마흐바르(kifle mahibar)"* 라고 했다. Wolaitta주 각 교회의 대표 전체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은" 따라뻬자 (*tarapeza)"* 라고 불렀다 (Cotterell 1976: 103).

Wolaitta 지역교회는 장로를 중심으로 한 행정 구조를 발전시켰는데, "Wolaitta 지역을

[13] 1936년 부터 2004년까지 Wolaitta 노회장과 서기들의 이름이 Markina Meza의 자서전 부록 6장에 잘 나타나 있다 (Markina, 2008).

15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마다 구역 대표 장로를 세웠다. 각 구역에는 개 교회들이 있어고 4명 이상의 장로들이 교회내에서 일어난 사소한 분쟁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은 구역 대표 장로에게 의뢰가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매 월 모이는 구역 대표 장로들의 모임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Cotterell 1973, 103). 개 교회의 목회 또한 장로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이 되었는데, 각 교회에 4명 이상의 장로들이 선출되며, 설교, 성례, 교육, 중요한 안건 결정을 하므로 "목회는 교회장로들이 담당을 하고, Wolaitta지역의 전도와 그 이웃 지역의 전도는 전도사들이 담당을 했다" (Balisky 1997: 193).

IV. 월레이타 지역교회에서 깔레 헤이워트 교단으로 성립 (1945-1974)

Wolaitta 지역 교회 성장 운동 (1945-1974)

1942년 2월부터 Haile Selassie 황제의 지지하에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 와서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황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돕도록 가능한 많은 선교 스테이션을 오픈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Brant, 1992: 107). SIM 선교사들이 1943년 7월 3일에 Wolaitta를 다시 방문했을 때, 엄청난 교회성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Davis 1966: 113-115). "마흐버르(Mahibir)"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에 교회 자치 구조엔 문제가 없었고, 신학 교리에 대한 교육도 당장은 필요가 없어 보였다. 당장 시급했던 것은 문맹교육이었다. 수천권의 요한 복음이 Wolaitta지역에 배포가 되었지만 암하라 부족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Wolaitta부족민들이 읽으려면 먼저 암하라 부족어를 배워야 했다 (Choramo 1997, 23).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지식, 역사, 지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들에게 성경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Cotterell 1976: 103). 그리하여 SIM 선교사들은 복음 증거는 Wolaitta지역 마흐버르(Mihbir)에게 맡기고 교육에 집중하기로 하고 여성들도 성경학교에 오도록 허락을 하게 된다(Fargher 1996: 285).

그리하여, 1945년 7월부터 SIM 선교사들은 Soddo 시의 선교 스테이션에서 Otona Bible School을 열어 모두 15개 구역에서 온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Fargher 1996: 285-286, Davis 1966: 113-115), 1945년 8월과 1946년 10월까지 온 학생들의 숫자만 평균 1,200명정도가 된다 (Cotterell 1973: 118). 학생들은 각자의 책과 필기도구를 위해서 3 Birr씩을 학교에 냈다 (Balisky 1997: 194). Bible School의 목적은 현지교회의 설교자와 교사들 뿐아니라, 인근의 부족들에게 보낼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1965년에는 각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8개의 지역에 Lower Level Bible School을 세울 것을 제안하게 되고(Markina 2008: 84), 정부의 허락을 받아 Wolaitta와 다른 지역에 더 많은 SIM 선교 스테이션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 Bible School, 초등학교및 병원들을 함께 오픈하게 되었다.

Wolaitta지역 교회 부흥회는 남부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교회 운동의 핵심이 되었다. Wolaitta 지역 교회는 성장함에 따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Wolaitta부족의 경계를 넘어서 전하기를 원했다. 첫번째 부흥회는 1947년 Otona SIM 스테이션에서 열렸다. Markina Meja에 의

하면,

> 부흥회의 목적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고, Wolaitta지역 밖으로 선교를 감당할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여러지역에서 사역할 전도사들을 임명하고, Wolaitta 지역 안에 교회들의 사랑과 화합을 돈독히 하며, 전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과 십일조와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Markina 2008: 163).

그러므로 부흥회는 초창기 부터 선교를 위한 것이었고, 부흥회 때 걷힌 헌금 또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1949년 부흥회에서 걷혀진 헌금은 341 Birr였다. 이 헌금은Qucha, Gofa, Kullo Konta, Arsi 그리고 Sidamo 에서 사역하는 27명의 전도사들에게 나눠졌다. 1950년 부흥회에서는 828 Birr가 헌금되었다" (Balisky 1997: 195). Wolaitta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선교에 대한 뜻을 모아 자체의 재정으로 Wolaitta 지역 밖으로전도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Wolaitta 부족 전도사들의 교회 개척 활동(1945-1974)

Wolaitta 지역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전도사들을 인근 부족으로 파송을 했다. 교회의 선교적 열정과 전도사들의 헌신이 교회성장 운동을 가져온 핵심이기도 하다. Wolaitta 지역 밖에서 활동한 전도사들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Markina에 의하면, "1959년에서 1962년까지 총 120여명의 전도사들이 인근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다"(2008, 84). Balisky의 기록에 의하면 "1937-1975년 사이에 300 여명의 전도사 가족들이 Wolaitta 교회들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다"고 한다(Balisky 1997).

먼저 Wolaitta 교회들은 전도사들을 에티오피아 남부 Omo[14] 지역에 사는 Gamo, Gofa, Kullo Konta부족으로 파송했다. 그들은 Omotic 언어를 사용했는데, Wolaitta언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Wolaitta 부족 처럼 전통종교를 믿고 있는 부족이라 Wolaitta 전도사들이 전도하기에 큰 이점이 있었다. Gamo부족에서는 SIM 선교사들이 1933년에 Chencha시에 Clinic을 오픈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설교와 교육에 전혀 열매가 없어서 사역을 접고 그곳을 떠나게 된다 (Cotterell 1973: 66). 그러자 1942년부터 Wolaitta 전도사인 Laliso Tantu, Jara Bakalo, 그리고 다른 전도사들이 그 지역에 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므로 1946년에 7개의 교회들 (Ochollo Zaza, Chabo, Zardo, Digida, Dedané, Shomära Zegeya, Boroda Gocho)이 개척되어지고 Gamo 마흐버르 (mahibar)가 형성된다 (Getachew 2005).

Gofa부족에서도 SIM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4명의 개종자를 얻은 후 1936년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된다. 선교사가 떠나고 난 후 세명의 개종자는 전통종교로 다시 돌아갔고, 1947년부터 Wolaitta전도사들이 이곳에 와서 전도활동을 하게되어 1953년에는 8개의 교회가 개척

[14] 에티오피아의 3대 주요 언어 그룹으로 Semitic, Cushitic, Omotic 언어들이 있다. Omotic 언어군은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대략 80개의 부족 언어가 있다. 그 중에서 월레이타어는 남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Ofcansky & Berry 1991: 91-100).

이 되어진다. 1959년에는40개의 교회와 2,000여명의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었고 (Cotterell 1973: 144). 1970년대에는 250여개가 넘는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 (Cotterell 1973: 174).

두번째로, Wolaitta 교회들은 자기들과 전혀 다른 부족인 Arsi, Sidama, Burji/Koyra, Aari 그리고 Kafa 부족으로 전도사들을 파송했다. 1944년에 SIM선교사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 이 지역에 학교와 의료사역을 감당했는데 (Markina 2008: 153), 선교사들은 문화와 언어장벽때문에 자신들이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Wolaitta *tarapeza* (지역교회 전체 노회)에 전도사들[15]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1962년에 Wolaitta 마흐바르 (mahibar)에서 8명의 전도사들을 Aari부족으로 보냈고, 1971년에 20여명을 Kafa부족으로 보내게 되었다" (Balisky 1997: 336).

Wolaitta 전도사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16] 극복했어야 했는데, 문화와 언어가 많이 달라서 잘 적응을 못하고 고향으로 되돌아 와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정교회와 암하라 정부관료들에 의해서 "개신교 선교사의 앞잡이 개들" 이라며 모욕을 받고 핍박당하고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나 Wolaitta전도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70년에 191개의 교회가 Sidamo지역에 세워졌고, Burji지역에 85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Cotterell 1973: 174; See the Chart 2).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Wolaitta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양상을 그대로 따라, 지역노회 (mahibar) 를 형성하여 자체적으로 전도사들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파송하게 되었다.

이태리 점령 이후로 수십년 동안 Wolaitta 교회들과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파송한 현지인 전도사들 그리고 Bible School 졸업자들의 열정적인 복음 증거로 전국에 16개 노회가 형성 되었다: "Kambatta Church group, Hadiya Church group, Sidama Church group, Gamo-Gofa Church group, Gedeo Church group, Arssi Church group, Chebo-Wolisso Church group, Addis Ababa Church group, Jimma and Saja Church Groups, Burji Church Group, Hammer and Bakko Church group, Kutcha Church Group, Kafa Church group, Asmara Church group, Bale Church group, and Ambo Baptist church group" (Markina 2008: 154).

<u>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단 성립의 배경</u>

Wolaitta 부족과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교회에 대한 핍박도 커졌는데, 특히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남부와 서부지역에서 "설교의 자유" 라는 문제를 갖고 강하게 도전을 하게 되었다. 1950년에 Wolaitta지역에서 개신교 성도들이 외국의 종교를 따른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투옥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에티오피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

[15] **SIM선교사 Alex Fellows는 Burji라는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는데, Wolaitta교회에 전도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해서, *Ato* Ganebo and *Ato* Kusa 가 오게 되었다 (Cotterell 1973: 137).**

[16] Wolaitta부족의 전도사들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다음의 책들을 참고할 수 있다. Peter Cotterell, *Born at Midnight* (1973). pp. 134-136. Paul Balisky, *Wolaitta Evangelists: A Study of Religious Innovation in Southern Ethiopia, 1937-1975(1997).*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Markina 2008: 155), 황제 Haile Sellasie가 남서부에서 선교활동을 장려하고[17] 있음에도 많은 전도사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외국 선교사들은 허락없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감금이 되었다 (Fargher 1996: 300). 이 당시에 여러 지역 교회들이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

1960년에는 Wolaitta 지역교회의 80여명의 지도자들이 Haile Sellassie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수도 아디스 아바바로 왔다. 정부에 호소할 방법을 찾던 중 "the Fellowship of Evangelical Believers"라는 단체를 1963년 7월 4일에 창단하게 된다 (Markina 2008: 157). 그 과정 중에 단체의 교리와 헌법을 준비하게 되었고, 회장에 Ato Aba Glie를, 회계에 Ato Dakka를 그리고 Markina Meza를 서기로 선출하였다. 이 단체의 창단에 의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게 되었고, 깔레 헤이워트 교단을 형성하는 모태가 되었다.

그 때 당시에 Evangelical Believers' Association은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SIM 선교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아직 독자적인 교단으로 서지는 못했다. Peter Cotterell과 깔레 헤이워트 교단의 Getachew Belete는 이 단체에 소속된 교회들을 "SIM related Church"로 기록하고 있다(Cotterell 1973: 170; Getachew 2005). Brian Fargher 또한 이 단체에 대해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The Evangelical Believers' Association는 지역 교회 대표들과 각 지역에서 일하는 SIM 선교사 대표들이 매년 모이는 교제 모임이며 선교사와 지역교회가 Association의 멤버이며 중요사항을 함께 결정한다" (1996: 300) 라고 기록하므로 아직 SIM 선교단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 와서 선교단체와 교회간의 관계에 있어서 갑작스런 변화가 있게 되는데,

> 1968년 2월 8일과 9일 SIM 스테이션인 Kulo Konto의 Waka 시에서 열린 the Evangelical Believers' Association에는 28명의 에티오피아 교회 대표들과 10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초반부에 선교사들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티오피아 대표들로부터 선교사들이 더 이상 Association의 멤버가 아니라 단지 고문으로 참석한 것이기에 투표할 권한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28명의 에티오피아 대표들은 Association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형성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1996:301).

Association이 현지 교단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소수 SIM 선교사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이 모여지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 (Fargher 1996:301). 결국 1974년에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회 (Ethiopian Kale Heywot Church)는 SIM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에 대해 Getachew Belete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974년 2월에 SIM 관련된 모든 교회들이 자주적인 행정기관으로 독립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40년동안 지닌 "SIM 관련 교회들"이란 이름을 Kale Heywet 교회로 바꿀 것에

[17] 황제 Haile Sellasie가 남부와 서부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장려한 주된 이유는 국민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바래서 였다 (Brian L. Fargher. 1996. The Origins of the New Churches Movement in Southern Ethiopia. p. 296- 297).

동의했다. 교단의 총회 사무실을 열고, 초대 총회장에 Ato Tekle Wold Giorgis 를 임명하고 교단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Getachew 2005).

오늘날, 깔레 헤이워트 교단은 7,774 교회와 650 만의 성도들을 가진 교단으로 성장했다 (Tesfaye Yacob 2010: 59). 아직도 월레이타 지역 교회 출신의 지도자들이 교단 총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국내와 국외 선교[18] 를 계속 감당하고 있다.

V.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개신교회 성장에 기여할 한국 선교사로서의 역할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회성장 운동의 의의

1920 년대 말에 Wolaitta 부족은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아주 작은 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이 부족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에 교회 성장을 가져 오게 한 모태가 되었다.그렇다면 에티오피아 개신 교회 성장 운동에 있어서 Wolaitta 지역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들 수 있다. 하일레 살라시에 황제의 근대화 정책으로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에 들어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남부 지역의 짐마로 가고자 했지만 길을 잘못들어 캄바타, 월레이타, 시다모 지역으로 가게 되어 그 지역의 주지사를 만나게 된 것, 또 그들이 선교사 Dr. Lambie 의 그 전에 치료했던 환자들이 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교센터가 되었고, 이 세지역의 언어와 문화가 유사했기에 그 후에 월레이타 전도사들이 언어의 어려움이 없이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로, 이태리 침략기간동안 선교사가 없는 가운데도 월레이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이다. 악령의 세력을 두려워 하던 그들을 해방 시킨 복음의 메세지는 이태리와 정교회의 핍박을 극복하고 월레이타 지역 밖의 다른 부족으로 전도사들을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각 지역에 성장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7000 여개의 교회가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큰 개신교 독립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세째로, 월레이타 교회의 자체적인 교회 성장과 주도적인 복음전파의 열심은 초창기부터 선교단체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했다. Brian Fargher 는 SIM 에티오피아와 SIM 나이지리아의 선교를 비교하면서, 깔레 헤이워트 교회가 처음부터 자주적인 교회였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그것은 우리교회 (SIM 교회)였다. 그래서 그들이 (나이지리아 성도들)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 그러나 에티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그들의 것이 었고, 우리는 방문객일 뿐이었다 (Fargher 1996: 52).

[18]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회는 현재 자체적으로 파키스탄에 1가족, 인도에 1가족, 수단 남부에 9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월레이타 지역 교회가 타부족에 70여명의 선교사를, 그리고 다른 부족의 지역 교회들이 다른 부족에 100 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에티오피아 교회성장운동에 기여할 한국 선교사로서의 역할

에티오피아 깔레 헤이워트 교회는 80여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현지인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큰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깔레 헤이워트 교회와 16년동안 사역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면들이 무엇이 있을 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첫째, 깔레 헤이워트 교회는 "전문 목회자가 없는 교회"이다 (Cotterrel 1973: 162). 사실 깔레 헤이워트 교회의 리더십은 장로 중심제로 형성 되어 있고,목사라는 타이틀이 아예없다. Peter Cotterrel에 의하면, "…깔레 헤이워트 교회에서는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전도사로 불리운다. 만일 Bible School을 다녔더라도 그 사람이 장로가 아니라면, 장로의 리더십에 복종해야 한다" (Cotterrel 1973: 163).그래서 신학 교육을 받은 전도사는 장로의 리더십하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전도와 심방을 하고, 1년에 두 세번 정도 주일 설교를 한다. 장로들은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자기 본업에 종사하면서, 설교와 교육을 주관하며, 당회 리더십에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깔레 헤이워트 교회는 장로들과 전도사들에 의해서 목회자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깔레 헤이워트 교회는 강단 설교와 말씀 교육이 약하다. Peter Cotterell에 의하면, "오늘날 이 교회(깔레 헤이워트 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깔레 헤이워트 교회는 초창기부터 주일예배 강단에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장로들 뿐아니라, 평신도들 중 설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설교를 해왔고 주일 설교는 매주 바뀌는 외부 초청 강사에 의해 인도되었기 때문에 강단 설교와 교육이 약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게 될 750만 성도들이 혼합주의와 이단에 빠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에티오피아 풀가스펠 교회의 Mekonnen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설교자들의 설교와 말씀 교육은 서구교육과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과 지식층,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므로, 신학교육과 전문 목회자 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되었다고 강조한다 (Mekonnen 1995: 224).

교회 리더십의 구조상 장로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당회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도사들은 신학교육을 잘 받았어도 개 교회의 당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한 일년에 한, 두번의 설교의 기회를 갖을 수 있을 뿐이라 목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러한 목회 리더십은 깔레 헤이워트 교단만이 아니라 다른 개신교단에서도 볼 수 있는 두드러진 리더십의 패턴이기 때문에, 21세기를 향한 교회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 전문 목회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깔레 헤이워트 교회 리더십을 전문 목회자 리더십으로 형성할 수 있을까? 에티오피아 개신 교회들은 현재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배우고 싶어한다. 짧은 교회 역사 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의 목회와 목회자 훈련을 모델로 삼아 질적인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그래서 2000년부터 깔레 헤이워트 아디스 아바바 노회는 GMS/SIM 소속 박종국 목사를 초청하여 아디스 아바바의 18개 교회에 목사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된다. 현재 에티오

피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회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번의 세미나를 통해 한국 목사제도와 목회에 대해 소개한 결과, 2003년에 목사 제도 준비 위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 2004년에 에티오피아 상황에 맞는 목사제도 메뉴얼이 만들어 져서, 처음으로 게자 교회에 사무엘 목사를 안수를 주었고, 그 후에, 메카니사 교회에 알라므로 목사, 콜패 교회에 마스팬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되었다. 2006년 5월에는 깔레 헤이워트 교단 총회에서 7,000여 교회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목사제도를 총회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선포하고, 목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국제 선교 단체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평신도 선교사들 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깔레 헤이워트 교회의 목사제도의 정착과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한국교회들과 목사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목회를 소개하고, 그것을 에티오피아 교회에 맞게 개발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째로는, 에티오피아 내에 신학교육을 할 수 있는 Seminary가 없다는 것이다. 각 교단의 신학 대학이 있지만, 신학학사, 리더십, 코뮤니티 개발, 기독교 교육 학사만 있을 뿐이다. 에티오피아 내에 유일하게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Ethiopia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는 2000년에 설립되어 다른 신학과정과 함께, M.Div. 과정을 시작했지만, 2010년 졸업생 중에 M.Div.학위로 졸업한 학생은 1명 뿐이다. 신학교육을 받아도 졸업생들이 교회의 영적인 목회자로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가 전도사가 되기 보다는 교회 밖에서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신학대학 내에 M.Div.과정이 활성화되어 신학교육을 통해 잘 준비된 목회자 후보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고, 각 교단내에 목회자 훈련원을 설립하여 목사안수를 주고 목회자로 키울 수있는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VI. 결론

에티오피아 월레이타 지역에 복음이 뿌려진 것은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었지만, 에티오피아 남부에 교회성장운동을 일으켜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은 월레이타 인들에 의한 것이었다. 월레이타 부족을 악령의 세력에서 해방시킨 복음의 메세지를 그 지역을 넘어 다른 부족에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인도,파키스탄, 수단까지 전한 깔레 헤이워트 교회의 기도와 전도의 열정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증가하는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의 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경험과 열정을 아프리카 선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참고문헌

Balisky, Paul. 1997. *Wolaitta Evangelists: A Study of Religious Innovation in Southern Ethiopia, 1937-1975.* University of Aberdeen, Ph. D. dissertation.

Brant, Albert E. 1992. *In the Wake of Martyrs: A Modern Sage in Ancient Ethiopia.* Abbotsford, Canada: University Printers.

Choramo, Mehari. 1997. *Ethiopian Pioneer Missionary: Autobiography of Evangelist Mehari Choramo.* Edmonton, Canada: Enterprise Publication.

Cotterell, F. Peter. 1971. An Indigenous Church in Southern Ethiopia. In *Bulletin for the Society for African Church History.* p. 102.

_____. 1973. *Born at Midnight.* Chicago, IL: Moody Press.

Davis, Raymond J. 1966. *Fire on the Mountains : the Story of a Miracle--the Church in Ethiopia.* New York : Sudan Interior Mission.

Duff, Clarence W. 1977. *God's Higher Ways: The Birth of a Church.* Nutel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_____. 1980. *Cords of Love: A Testimony to God's Grace in Pre-Italian Ethiopia as recorded in memorabilia of One of Sudan Interior Mission's "C.O.D. Boys.*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Fargher, Brian L. 1996. *The Origins of the New Churches Movement in Southern Ethiopia 1927-1944.* Leiden, The Netherlands: E.J. Brill.

Getachew Ballete. 2005. *The Genesis and Growth of the Kale Heywet Church.* www.ekhc.org.et

Getachew Haile. 2005. Ethiopian Church. In *Encyclopedia of Religion.* Ed. Lindsay Jones and Thomson Gale.

Hastings, Adrian. 1994. *The Church in Africa 1450-1950.* Oxford: Clarendon Press.

Isichei, Elizabeth. 1995.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frica.* Grand Rapids, MI: Eerdmans.

Jones, A.H.M., Elizabeth Monroe. 1935. *A History of Ethiopia.* Oxford: Clarendon Press.

Lambie, Thomas A. 1939. *Doctor without a countr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_____. 1943. *Boot and Saddle in Afric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Lewis, Earl. 1961. *Lewis' letter to Raymond Davis, 12 September 1961.*

Markina Meza. 2008. *Unbroken Covenant: An Autobiography in the context of the Wolaitta Kale Heywet Church.* Ontario, Canada: Guardian Books.

Marcus, Harold G. 1975. *The Life and Times of Menelik II: Ethiopia, 1844-1913,* London:

Ohman, Walter and Marcella. 1937a. *Letter to Jean Trout*, 7 March 1937.

_____. 1937b. *Letter to friends*, 5 April 1937.

Ofcansky, Thomas P., LaVerle Berry. 1993. *Ethiopia: A Country Study.* Maryland: Bernan Press.

Playfair, Guy W. 1943. *Trials and Triumphs.* Toronto, Canada: Livingstone Press Limited.

Rice, Esme Ritche. 1938. *Eclipse in Ethiopia and Its Corona Glory.* London: Marshal, Morgan & Scott, Ltd.

Shinn, David H., and Thomas P. Ofcansky. 2004. *Historical Dictionary of Ethiopia.* Lanham, Maryland: The Scarecrow Press, Inc.

SIM. 1945. *Sudan Witness.* New York : Sudan Interior Mission. Quarterly Periodicals.

Tsafe Tezaz Gabra Selassie, 1959 EC. *The Life and Times of Menelik II Emperor of Ethiopia.* Addis Ababa: Artisitc.

Taddesse Tamrat. 1970. *The Church of Ethiopia: A Panorama of History and Spiritual Life.* Addis Ababa: The Publication of Ethiopian Orthodox Church.

_____. 1972. *Church and State in Ethiopia, 1270-1527.* Oxford: Oxford Press.

_____. 1998. Evangelizing the Evangelized: The Root Problem Between Missions and the Ethiopian Orthodox Church. In *The Missionary Factor in Ethiopia: Papers from a Symposium on the Impact of European Missions on Ethiopian Society, Lund University,*

August 1996. Ed.Getachew Haile, Aasulv Lande, and Samuel Rubens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Tesfaye Yacob. 2010. *Ye Shegeger Mesenado* (Exit Report). Addis Ababa: Ethiopian Kalehywet Church.

Trimingham, J. Spencer. 1965. *Islam in Ethiopia*. London: Frank Cass & Co. Ltd.

Gerdien Verstraelen-Gilhuis. 1992. *A New Look at Christianity in Africa,* Zimbabwe: Mambo Press.

Willmott, Helen H. 1949. *The Doors Were Opened: The Remarkable Advance of the Gospel in Ethiopia.* London: SIM.

박종국 목사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GMS-SIM멤버로, Mission Hills Africa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박 선교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과 대학원, 영국 버밍햄 대학 대학원에서 아프리카 선교학을 공부했고, 왕성교회 부목사, 선교국장을 역임하고

에티오피아에서 교회 개척과 목사제도 설립, 길거리 어린이 학교보내기 프로젝트인 "아디스 카타마"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직업과 기술 창출을 위한 "에티오피아 기술 대학 설립"을 위해 계획 기도하고 있다.

박종국 선교사는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영국 버밍행 대학 선교학), GMS, SIM 선교사로 16년동안 교회 현지 교단인 "KHC" (word of life, 7,500교회와 600만명의 성도)에서 개척과 목회자 훈련 특히 에티오피아에 평신도 사역을 목사 제도를 만들어 사역하고 있고,

장은혜 선교사는 이화여대와 동대학원, 영국 버밍햄 대학 선교학석사,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ICS, Ph D. 에서 논문을 쓰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 선교부에 의해 세워진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에서 교수사역하고 있으며 여성과 길거리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